201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보고서**

ANNUAL REPORT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 사업보고서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발행일** 2020.06. **발행인** 차흥봉 **편집인** 이제훈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TEL.** 1588.1940
FAX. 02.756.4256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기획/편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실 **기획/디자인** 서울문화사, DESIGN BY:SOOP **인쇄** 경일칼라콤

CONTENTS

04 2019년 사업 하이라이트

08 GREEN INTERVIEW
초록우산이 있어 더 행복해졌습니다

14 재정보고 2019

18 후원자 주요 문의 사항
후원에 대한 세 가지 궁금증

<WITH CHILD>

22 사업성과 2019

24 국내사업

34 해외사업

44 아동복지연구

<WITH GREEN>

48 캠페인 & 방송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선물합니다

52 후원자와 함께 만드는 초록우산

54 2019 스타 서포터즈 활동

56 국내외 사업장 현황
도움이 필요한 곳에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58 초록우산 미션 & 비전

59 CEO 메시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년 사업 하이라이트



옹호사업

아동 주거환경개선 '집다운 집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이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제도 개선 옹호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아동주거빈곤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토론회,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이슈 파악을 위한 주거복지학교 등을 진행하였고, 아이들의 주거공간 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활동으로 '아동'이 주거기본법상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정책에 아동주거빈곤가구가 우선공급·지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캠페인

아동권리환경 인식개선 캠페인

똑똑, 나가도 될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9년 상반기, 아동권리환경 인식개선 캠페인 '똑똑, 나가도 될까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업 성과

2019.01.
시흥시 **시흥형 아동주거 급여제도** 실시

2019.04.
국회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주거기본법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 포함

2019.07.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10.
대한민국 정부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2019.1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필요계층에 아동주거빈곤가구 포함





캠페인

세상에 오자마자 혼자 된 아이들을 [품:다]

세상에 버려지기 위해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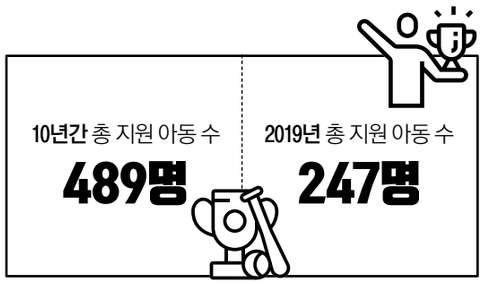
무연고아동 지원 캠페인 [품:다]는 친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혼자가 된 아이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2016년부터 진행해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대표 캠페인입니다. 2019년 한 해 [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3,024명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아동 지원

인재양성사업 10주년

재능을 품은 아이들, 초록우산을 만나 인재로 성장합니다.

학업,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재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꿈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재능을 발견한 아이들이 초록우산을 만나 새로운 기회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 연대하며 '같이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10년간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총 489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옹호사업

대한민국 어디든 놀이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5년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아동 놀 권리 보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2개(어디든 놀이터, 맘편한 놀이터, 팝업놀이터 포함)의 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놀이물품 및 놀이지도를 제작, 배포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똑똑, 놀아도 될까요?'를 진행하며 아동 놀 권리 보장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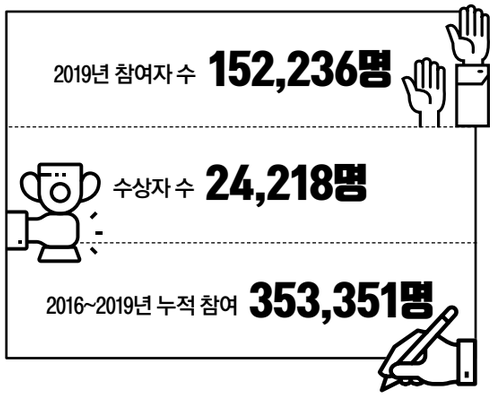


캠페인

제4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편지는 소통이 점점 없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힘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2019년 교육부, MBC와 함께 본 공모전을 진행하며 국내외 초·중·고 교생 총 15만2,236명이 스승, 부모,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 중 2만4,218명(본상 및 입선 포함)이 수상하였습니다.



해외아동 지원

캄보디아 교육사업 '친구들아, 어서 학교 가자'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아이들의 등굣길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캄보디아 크라체주 쳇보레이구에 위치한 딸루(Talous) 초등학교 도서관은 낡고 오래되어 아이들의 학습 흥미를 끌기 어려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7년부터 3년간 이 지역 1,579명의 아이들에게 새 학교와 멋진 도서관, 다양한 학습도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2019년 딸루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퇴율은 8%에서 2.3%로, 결석률도 50%에서 10%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초록우산이 있어 더 행복해졌습니다



초록우산을 만나 더 행복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린레거시클럽

평생 모은 유산을 기부해주신 박춘자 후원자님

맨손으로 일군 가게에서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재산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박춘자 후원자님.
재단에 후원하기 전부터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살피던 따듯한 이웃입니다.
어느 날 TV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광고를 보면서 한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3억 원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잘 써달라는 말과 함께
기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도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고생해서 번 돈이 더 좋은 일에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지내게 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집다운 집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효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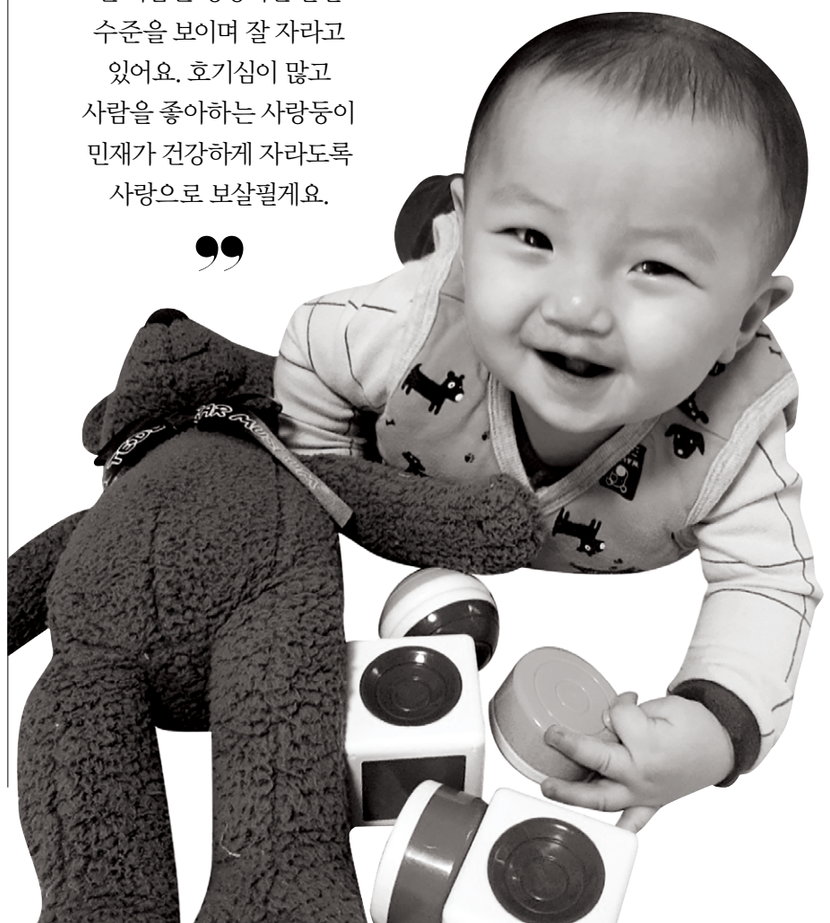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효진이(가명).
한창 멋을 부릴 나이지만 옷이며 가방에
가득 피어 있는 곰팡이는 효진이를 더욱 위축되게 합니다.
어둑하고 축축한 집에서 각종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효진이와 엄마에게
드디어 새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집 안에 주방과 화장실 공간이 분리되고
채광과 환기가 좋은 꿈에 그리던 집,
엄마와 효진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
숨 쉬기조차 힘들었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심장수술도 여러 번
한 효진이가 이대로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무연고아동 지원 사업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된 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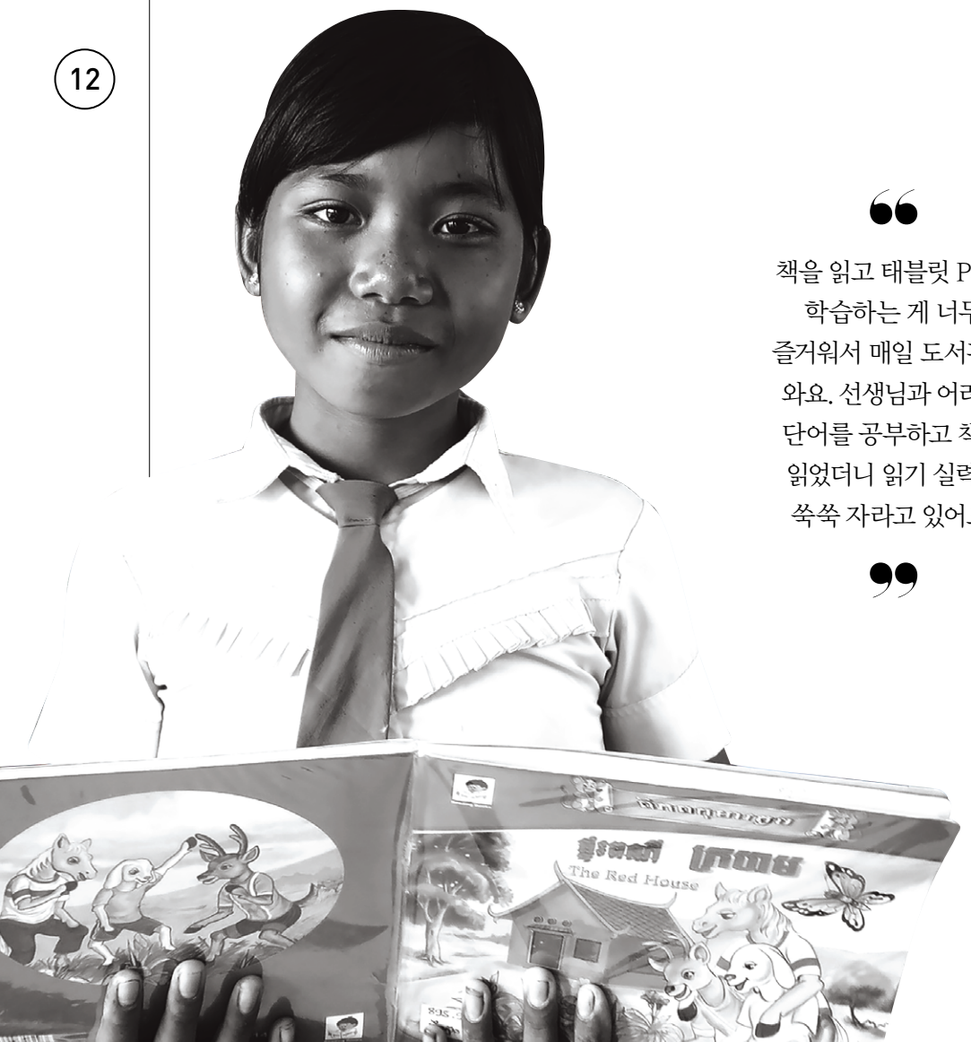
태어난 지 채 백일도 되지 않아 혼자가 된 민재(가명).
‘엄마가 지금은 널 키울 수 없지만 성공해서 몇 년이 걸리든
꼭 너를 데리러 올게’ 메시지를 남기고 간 엄마는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작고 어린 민재에게 처음 만난 세상은 너무 차가웠지만
민재를 향한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다른 아이들처럼 배밀이를 시작하고 옹알이도 하며
따듯한 세상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
처음 만난 민재는 왜소하고
가녀렸지만 생후 8개월이
된 지금은 정상적인 발달
수준을 보이며 잘 자라고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둥이
민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사랑으로 보살필게요.
”



해외아동 지원 사업
캄보디아에서도 소외되고 낙후된 삼보 지역에 사는 12살 삣 나리

삣 나리(가명)가 다니는 낡고 오래된 마을 학교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텅 빈 도서관이 있습니다. 선반이 없어 책 보관도 어렵고 보관할 책도 없는
도서관이지만 삣 나리는 같은 책을 보고 또 보며 꿈을 키워갑니다.
삼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새 도서관 건물을 짓고 소파, 선풍기, 책상, 의자, 태블릿 PC 등을
갖춘 도서관을 선물하였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글씨를 쓰며 도서관이 놀이터가 된 삣 나리는
학교 가는 게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
책을 읽고 태블릿 PC로
학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일 도서관에
와요. 선생님과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었더니 읽기 실력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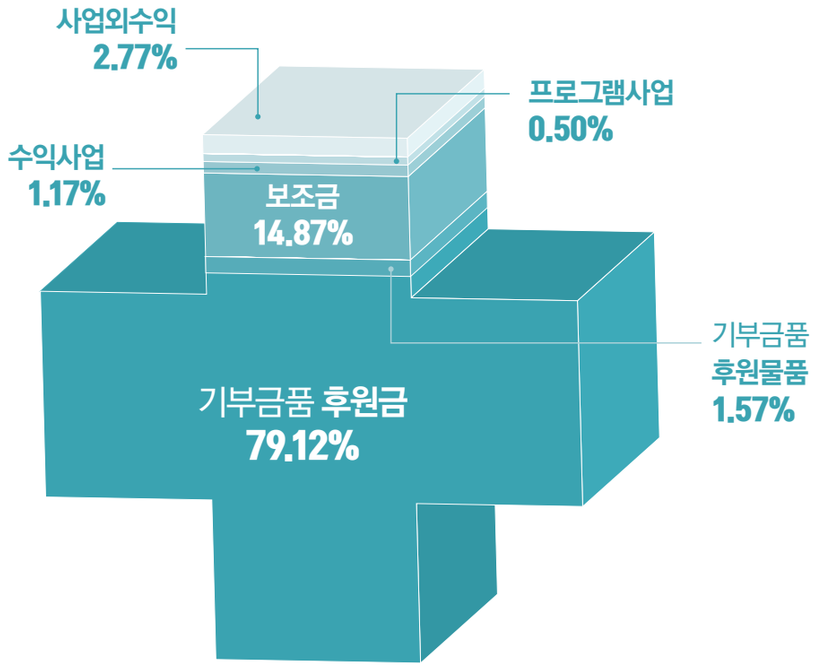
인재양성사업
과녁을 명중시킬 때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좋다는 양궁소녀 하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양궁을 시작하면서
실력도 뛰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입상하게 된 하늘이는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아토피 피부염으로 양궁을 그만두게 될까 봐
늘 마음을 졸였던 하늘이는 초록우산 아이리더로 선발되어
운동에 필요한 장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받아
마음 편히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도쿄올림픽 출전권 마지막 시합을 남겨두고
오늘도 열심히 활시위를 당깁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자상하게 먼저 챙겨
주셔서 늘 감사해요!
그 덕에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열심히
해서 멋진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

재정보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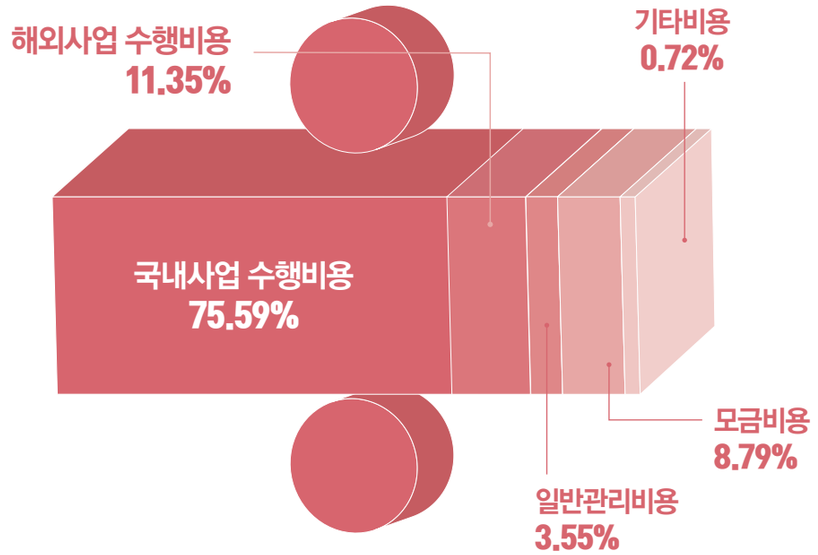
* 수익사업의 주 수입원은 1986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신인 CCF(현 ChildFund International USA)가 38년간의 한국 아동지원을 종결하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남겨준 서소문 사옥 및 토지 등을 매각하여 마련한 어린이재단 빌딩의 임대사업 수익입니다.

단위 : 원

수입내역 총계 211,676,489,401

기부금품	167,472,432,397 **후원금** | 정기 및 일시 후원금 수입	3,319,895,534 **후원물품** | 기증받은 물품 수입
	31,485,575,720 **보조금** | 정부보조금 수입	2,468,044,840 **수익사업** | 빌딩임대사업 수입
	1,062,315,150 **프로그램사업** | 복지 프로그램 운영 수입	5,868,225,760 **사업외수익** | 잡수입, 이자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합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9년 결산 기준 국내사업 수행비용 152,504백만원(75.59%), 해외사업 수행비용 22,906백만원(11.35%), 모금비용 17,730백만원(8.79%), 일반관리비용 7,156백만원(3.55%), 기타비용 1,448백만원(0.72%)을 지출하였습니다.(차기이월금, 법인세비용 제외)
* 기부받은 토지의 매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2018년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35호)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 원

결산내역 총계 211,676,489,401

공익목적사업비용	152,504,279,809 **국내사업 수행비용**	22,906,745,441 **해외사업 수행비용**
	7,156,285,103 **일반관리비용**	17,730,158,934 **모금비용**
기타비용	1,448,579,789	
사업비용 총계 (a)		201,746,049,076
345,792,810 **법인세비용** (b)		9,584,647,515 **차기이월금** (c)
결산내역 총계 (a+b+c)		211,676,489,401

사업비용 구분	사업영역	금액(원)	비율(%)	내용
국내사업 수행비용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	8,243,236,857	4.09%	아동권리교육, 권리기반강화 정책 개선, UN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캠페인
	시민적 권리와 자유	592,583,081	0.29%	아동참여권리 증진사업(어린이연구원,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어린이기자단 등)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8,874,014,146	4.40%	학대피해아동 위기 개입,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폭력피해아동 보호, 폭력예방 교육사업(아동폭력,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실종유괴 예방)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49,548,579,599	24.56%	국내아동 결연사업, 부모교육, 가족 기능 강화, 가정위탁 지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양육 지원, 보육비 지원
	기초보건과 복지	35,790,147,110	17.74%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심리치료, 건강증진, 장애아동 지원, 안전환경 조성
	교육과 여가문화	42,000,639,555	20.82%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드림합창단, 문화예술 지원, 초록우산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여가놀이 지원, 인재양성비 지원, 인성함양 지원, 교육 지원
	특별보호조치	782,064,096	0.39%	난민아동 지원, 긴급구호
	지역사회복지	5,973,431,148	2.96%	장애인복지, 사례 관리, 지역조직화
	국내 사업 연구조사	699,584,217	0.35%	국내사업 연구조사
국내사업 합계 (a)		**152,504,279,809**	**75.59%**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개인적·즉각적 문제 해결을 넘어 근본적·구조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아동보호정책을 도입하여 조직운영, 인사관리, 사업 수행 등 조직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기부금품 총액(보조금 제외)중 17.6%(사업수행 인력 비용 13.0%, 일반 관리 및 모금 업무 수행 인력 비용 4.6%)를 인력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용 구분	사업영역	금액(원)	비율(%)	내용
해외사업 수행비용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	55,453,629	0.03%	권리기반강화 정책 개선 (Global Advocacy 활동)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2,029,583,345	1.01%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보호그룹홈 지원
	기초보건과 복지	10,374,658,714	5.14%	해외아동 결연사업(지역개발사업), 모자보건, 질병 퇴치, 기초보건, 영양 지원(북한 지원 포함), 생식보건, 식수위생,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육과 여가문화	7,231,088,952	3.58%	영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훈련
	특별보호조치	2,560,405,659	1.27%	긴급구호, 재건복구 및 재난위험 경감, 난민 지원
	국제협력	579,687,532	0.29%	국제협력(ChildFund Alliance 연대활동)
	해외 사업 연구조사	75,867,610	0.04%	해외사업 연구조사
해외사업 합계 (b)		**22,906,745,441**	**11.35%**	
일반관리비용 (c)		**7,156,285,103**	**3.55%**	기획, 인사, 회계, 감사 및 IT 기획 (통합업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모금비용 (d)		**17,730,158,934**	**8.79%**	온라인·오프라인 모금캠페인 수행, 후원서비스(국내외 사업보고서, 기부금영수증 등) 제공
기타비용 (e)		**1,448,579,789**	**0.72%**	재단빌딩임대 수익사업 시설관리비 및 인력비용 등
사업비용 총계 (a+b+c+d+e)		**201,746,049,076**	**100%**	* 차기이월금, 법인세비용 제외

후원에 대한 세 가지 궁금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님과의 소통으로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Q.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원칙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내부 예산관리 절차를 준수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비용을 집행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 요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조정합니다.

원칙② 매년 내부감사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 중구청을 포함하여 각 사업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을 검증받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재단에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하는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금 지급, 복지서비스 지원, 자원 연결을 넘어 사회 인식 개선, 법과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도 기존 복지사업과 더불어 법과 제도를 '아동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모든 과정을 권리의 주체인 '아동'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만든 정책공약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공약이 반영 및 실행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개보수가 어려운 놀이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 금연구역 지정
- 「주거기본법」 개정,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 포함
- 행정안전부와 함께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아동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Q.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국내 아동 지원

어린이재단은 국내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품 지원
결연양육비,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인재양성비 등 정기 및 일시 후원금품 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학대예방, 심리치료, 양육상담 및 전문 프로그램(자립, 학습, 인성, 부모교육 등) 지원





옹호활동
아동 참여 정책 제안, 아동 환경 개선,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지원

해외 아동 지원

어린이재단은 해외 아동들을 위해



통합적 지역개발
아동이 살고 있는 마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보건의료, 식수위생, 자립지원, 교육, 아동보호사업 등 통합적 지역개발 진행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재난위험 경감, 난민지원 활동을 통해 자연재해, 분쟁 등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피해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CHILD WITH

22 사업성과 2019
24 국내사업
34 해외사업
44 아동복지연구

2019

210,460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1,252
시민적 권리와 자유

42,249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

376,230
기초보건과 복지

636,541
교육과 여가문화

341,98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661
특별보호조치

21,676
일반사업

100,884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440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

298,606
기초보건과 복지

226,396
교육과 여가문화

129,306
특별보호조치

국내사업 참여자 수

1,632,053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보육, 학습, 의료, 주거비 및 결연양육비, 인재양성지원 등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권리에 기반한 사업을 수행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아동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였습니다.

해외사업 참여자 수

755,632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9년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교육과 재난 위험에 대비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국제어린이재단연맹,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2019년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아동권리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249명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

아동 권리에 기반하여 스스로 지켜낼 힘을 함께 길러냅니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9년 아동과 성인 2만1,855명을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진행하였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낼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 옹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원탁토론회,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기념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전국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8~13세 아동 354명이 별의별
탐험대가 되어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담은 〈낮은 사진전〉
개최를 통해 성인 중심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편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52명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학업부담, 경쟁적인
교육환경, 부족한
여가·놀이 시간 및 환경
등으로 아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가는 힘을 길러
아동의 의견이 담긴
〈제5·6차 UNCRC 이행
대한민국 아동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제82회
UNCRC 대한민국 아동
심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아동 권리의 현실태를
전달하였습니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참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참여리더스, 아동옹호활동가, 아동정책참여단 등을 구성하여 아동참여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정책 제안 및 참여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아동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방합니다.

가정,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예방사업과 더불어 폭력피해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학대로 인해 일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룹홈 내에서 의식주 제공과 함께 심리치료, 교육문화활동, 학교생활지원, 정책 개선 등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며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동안 놀리는 것을 조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내가 놀렸던 친구들의
권리를 빼앗았던 것 같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서로의 기분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아름
(가명, 폭력예방교육사업) –

›폭력예방사업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대상

- 아동학대예방 교육
- 아동성폭력예방 교육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 아동학대예방 네트워크 활동
- 정책 개선 등

210,460명



376,230명

어느 날, 제 또래의 친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사고를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날을 떠올리며 학교 가는 길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
어른들과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저와 친구들이 사고 걱정 없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보다는 사람, 특히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약속,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수(가명, 아동안전환경조성사업) –

›아동안전환경조성 정책 개선 성과

- 시흥시 통학로 실태 조사를 통한 통학로 개선 사업비 1억원(시흥시비) 반영(2019.10.)
-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2019.10.)
- 창원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2019.10.)





기초보건과 복지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한 통학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며 정책 개선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아동의 의료비,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 여가문화

꿈과 함께 한 뼘 더 성장합니다.

학업,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과 재능이 있음에도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재능계발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우수한 재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10년간 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하여 489명의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드림합창단을 통해 교육, 문화, 여가를 아우르는 활동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놀이터를 만들어갑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3차에 걸쳐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5년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아동 놀 권리 보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8개의 어디든 놀이터, 12개의 맘편한 놀이터, 12개의 팝업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을 만들고, 놀이물품 및 놀이지도를 제작 및 배포하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공부를 하고 놀이는 조금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뛰놀고 게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놀이터라 더욱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 윤혜지(가명, 여가놀이지원사업) –

여가놀이지원사업 정책 개선 성과

- 경기도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2019.06.)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2019.09.)
-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단체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촉구(2019.10.)
-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2019.12.)

636,541명







341,984명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아동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빠의 암 발병으로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유진이(가명)는 얼마 전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빠와 떨어져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 외롭지 않도록 선물과 저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선물했죠. 선물보다 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먼저 품에 챙기는 유진이의 모습을 보며 위탁아동들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는 최고의 방법은 아이를 향한 진심이 담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서영(가명, 친인척위탁부모) –

특별보호조치

따듯한 봄날, 울창한 산림이 아름답던 강원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설계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 이서연(가명,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워크숍) –

재난이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동입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로 인한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긴급생계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재난 상황을 경험한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작업을 진행해 2020년 6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또는 난민신청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놀이문화활동 등을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661명

일반사업

21,676명

지역조직화

지역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주민 문화체험, 아동복지위원회, 지역활동가,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등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원

사례 관리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지원

노인복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밑반찬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

440명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

우간다에는 '보통의 영웅'이 있습니다.

아동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주체로 교사, 지역주민 등 어른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보통의 영웅'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우간다 내 10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아동권리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권리클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윌리엄(12세)은 미국에서 열린 UN 고위급 정치회담에 우간다 아동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아동권리클럽을 통해 체득한 아동권리와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목소리를 울림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제어린이재단 연맹과 협력하여 아동권리환경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르완다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권리 워크숍**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온라인 환경과 아동권리 일반논평 작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및 심의회의 참석**



100,884명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조혼과 할례 관습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합니다.

케냐 타라카니티 지역에는 여전히 여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관습, 조혼과 할례(FGM)가 존재합니다.

케냐 정부는 관습 폐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지만, 아이들을 학교 중퇴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오랜 관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여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정부의 아동보호관리자 훈련을 제공하고, 특히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동보호 인식 증진 활동과 건강한 성인 통과의례 문화가 자리잡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합니다.

탄자니아 음보메로 지역주민들은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주변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해도 지역주민 누구도 대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음보메로 지역 내 아동보호 원스톱센터를 설립해 아동학대 사례 접수-조사-개입이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원스톱센터는 모로고로주에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모로고로 내 아동학대 사례 대응에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군·구 단위의 아동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지역주민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알고, 아동권리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된 아동보호
활동교육을 통해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혼,
할례와 같은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꿈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은 더 나아가
여기서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 꿈은 간호사인데요,
항상 저희의
꿈을 응원해주시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선생님들을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
꼭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 샤론 가투미
(가명, 케냐
아동보호사업) -



298,606명

새 병원에 예쁜 그림들이 많아서 검사할 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고
주사를 맞을 때도 아프지 않았어요. 새 병원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 비아(가명, 베트남 보건의료사업) –

더욱 감동이었던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환자들을 비롯해
아이들이 낸 의견이 건축에 반영되었다는 점이에요.
– 비아 어머니(베트남 보건의료사업) –

기초보건과 복지

보건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미얀마는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보건과 아동보호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보건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미얀마 양곤 지역 아이들이 4개의 클리닉에서 통합 아동보호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 3만 6,408회의 아동보건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74명의 아동이 사례관리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와 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아동친화적 보건의료환경을 구축합니다.

베트남 크롱봉 지역 병원은 소아과와 아동 전담 병실을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거나 의료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복도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한화생명과 함께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병동을 신축해 소아과 및 산부인과 진료과목 신설, 아동 전담 진료실 및 검사실, 병실 등 아동친화적 보건의료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치료 지원으로 배움의 꿈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말라위 마숨반쿤다 지역은 인구의 약 80% 이상이 옴 진드기 피부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말라위 마숨반쿤다 지역 내 2,000여 가구에 옴 진드기 치료제, 보습로션, 비누 등의 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되었던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 완쾌하였고,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지속하며 배움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26,396명

교육과 여가문화

누구나 어려움 없이 공부하도록 돕습니다.

라오스 후아판주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84%가 민족어를 모국어로 하기에 공용어인 라오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동은 22%, 독해가 가능한 아동은 6%에 불과합니다. 재단은 2018년부터 지역정부 교육부 관계자와 함께 4주 과정의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마을발전위원회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9년에는 62개 초등학교에서 독서캠프, 독서축제, 책읽기 또래 모임 등 참여형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교사 코칭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동친화적 학습환경으로 학교 적응을 돕습니다.

2017년 캄보디아 삼보 지역의 아동권리 상황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퇴율은 16.6%, 특히 6학년 여학생의 중퇴율은 25.5%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재단은 삼보 지역 초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① 아동친화적 학습환경 조성을 통한 기초교육 접근성 증대 ② 아동친화적 교수역량 및 학교운영역량 증진 ③ 저학년 아동 읽기능력 향상(사서 교육, 또래학습도우미 훈련 등)을 목표로 총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학교 등록 캠페인, 마을 참여적 지도 제작, 학교 운영진 훈련 수요 조사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9년에는 교사 훈련뿐 아니라 도서관 신축, 교실 개보수, 학습교구 및 도서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교육환경에 쉽게 적응하도록 도운 결과 재등록률을 포함하여 총 학교 등록률이 89%에서 95%로 향상되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돕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르키나파소 까레 지역이 속한 메구엇현은 중학교가 3개로 33개인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까레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등하교를 위해 최소 7~16km의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이는 안전과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까레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였고 이후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읽고
쓰지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읽기학습도구를
빌려준 덕분에
집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 쉬는 시간에는
또래학습도우미가
다양한 책이 있는
예쁜 도서관에서
어려운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이제는 선생님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 쓰러이 레악(가명,
캄보디아 교육지원사업) –

9~10km 떨어져 있는
중학교에 다닐 때는
하교 후 빠르면 오후
7시, 늦으면 저녁
9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무서웠는데,
까레 중학교가 생긴
이후에는 등교 시간이
훨씬 줄어 행복해요.

– 로첼레
(가명, 부르키나파소
교육지원사업) –





129,306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당의 나무 아래서
수업을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교실 안에서
보다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학습도구들
또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타난토피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

특별보호조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부지역은 진도 7.5 규모의 강진과 연이어 일어난 쓰나미로 7,000여 명의 사상자와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재난 발생 즉시, 아이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긴급대응 후 현지 정부에 의한 본격적인 재건이 이뤄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재단은 임시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도록 돕습니다.

우간다 팔로잉야 난민캠프에는 12만 명의 남수단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가 18세 미만 아동이며, 이 중 4,452명의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거나 없는 아동입니다. 재단은 폭력과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리더를 교육하고 아동보호 법률을 번역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및 소녀 대상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아동친화공간 3곳을 건축하고 보육교사 12명을 훈련하여 아동 대상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배고픔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례적인 고온현상과 복합적인 가뭄, 홍수 피해로 식량 위기가 심각해져 북한의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의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탁아소와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과 아동시설에는 텃밭을 만들고 농가에는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1,000세대가 넘는 가정의 건강한 영양 섭취를 지원하였습니다.



누적 연구물 2011 ~ 2019년

총 95건

아동복지연구

아동의 행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아동복지연구소에서는 2019년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다자녀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2060 세대별 결혼출산 가치관 조사〉, 〈UNCRC 30주년 기념 한국 아동권리의 현주소〉, 〈아동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이해 증진 연구〉, 〈희망토요일 & 희망공부방 사업 평가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 지원 아동의 참여 경험과 의미〉,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효과성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총 7편의 연구와 1편의 이슈 리서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저출생', '미세먼지 환경'같은 아동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선도적으로 발견 및 대응하고, 복지 및 모금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재단 복지사업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이슈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아동복지연구소는 아동 이슈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복지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개최한 제16차 아동복





지포럼은 저출생 이슈를 가족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다루어 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제5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을 개최하여 최근 모금 환경의 변화를 짚어보고 새로운 모금 방식에 대한 단체들의 역할을 모색하였습니다.

아동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합니다.

아동지표는 아동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정기간행물입니다. 2019 아동지표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지표를 '인구, 가족구조 및 생활, 건강, 빈곤, 사회적 보호, 안전, 교육, 사회참여 및 활동, 학대, 이주민'영역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아동복지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동 분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합니다.

연구지원사업은 아동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신진 연구자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수행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76명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총 38편의 연구물을 공유하였습니다. 2019 연구지원사업은 일반연구와 심화연구로 나누어 〈가정 밖 청소년의 학대 경험과 범죄 가·피해 실태 연구〉, 〈다문화 청소년의 자살 경향성에 관한 연구〉, 〈Q방법론을 활용한 아동수당에 관한 주관성 연구〉 등 총 7개의 연구팀을 지원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재단 대표 아동복지연구지를 발간합니다.

〈동광(童光)〉은 1957년 발행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학계를 이어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대표 아동복지연구지입니다. 학계 전문가의 기획기고와 현장 전문가의 현장이슈로 구성된 114호 〈동광〉은 '포용국가', '저출생', '놀 권리', '재난', '스낵컬처'같은 올 한 해 이슈가 되었던 아동 관련 키워드를 주제로 총 5편의 기고작을 게재하였습니다.



GREEN WITH

48 **캠페인 & 방송**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선물합니다

52 **후원자와 함께 만드는 초록우산**

54 **2019 스타 서포터즈 활동**

56 **국내외 사업장 현황**
도움이 필요한 곳에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58 **초록우산 미션 & 비전**

59 **CEO 메시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선물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자님의 온정 어린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펼친 대외 활동을 소개합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무연고아동 지원 〈품:다〉

지원 아동 수 3,024 명

태어나자마자 따듯한 품 대신 차가운 세상을 먼저 마주한 무연고아동의 현실을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입니다. 2019년에는 연말 대표 캠페인 '산타원정대'와 함께 진행하여 무연고아동에게 따듯한 연말을 선물하였습니다.

***산타원정대** 연말에 더 소외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일반 시민들이 함께 산타가 되어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13년째 지속해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대표 연말 캠페인입니다.

무연고아동 지원 사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어 세상을 마주하기도 전에 홀로 병마와 싸워야 했던 진서(가명)는 많은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진서는 세상의 따듯함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모자가정 지원 〈캄캄한 엄마의 밝은 빛, 우주〉

시각장애 1급의 어린 엄마와 18개월 아들 우주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남들보다 조금 서툴지만 건강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주 엄마에게 후원자님들의 따듯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아동 주거환경개선 〈집다운 집으로〉

지원 아동 수 5,975 명

(2017~2019년, 3년간)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빈곤아동이며, 100명 중 1명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5,975명의 주거빈곤아동이 집다운 집에서 성장하도록 주거보증금과, 주거 개·보수, 공부방,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비 지원 사례

비닐하우스 형태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폭염, 한파 등 위험 요소가 많았던 수연이(가명)의 집은 이제 포근하고 안락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당연한 '집'이 수연이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조손가정 지원 〈할아버지 아빠의 슬픈 소원〉

바닷가 시골 마을, 낡은 집에서 황혼의 아빠가 된 할아버지와 아기 수지의 사연이 전해진 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지의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양육비와 생계비, 전국에서 답지한 후원물품이 수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돕습니다.



환아 지원 〈'엄마, 아빠'보다 먼저 배우는 말, 아파〉

지원 아동 수 **1,533** 명

집보다 익숙한 병원, 장난감보다 익숙한 주삿바늘. 태어나자마자 혹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 온 힘을 다해 견디며 성장해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1,533명의 환아와 그 가정을 위해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도왔습니다.

연우(가명) 아빠

"안녕하세요.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거대 모반증 진단을 받은 연우(가명)의 아빠입니다. 남에게 베풀기 힘들어지는 각박한 세상에서 재단과 많은 후원자님들의 도움과 응원에 오늘도 힘을 내어봅니다. 훗날 연우가 크면 주위에 어렵고 아픈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BS 동행

가난의 굴레에 갇힌 아이와 가정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2019년 1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후원자로 동참하여 약 8억 원의 후원금을 위기가정 아동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아픈 부모님과 두 형제를 홀로 책임지느라 24시간이 모자란 아빠, 그런 아빠를 위해 돼지 저금통을 모으는 동현이(가명)의 사연이 KBS 〈동행〉을 통해 소개된 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동현이 가족은 깨끗한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현이(가명) 보호자

"감사하고 고맙죠, 얼굴도 모르는데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꼭 저 대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김동현(가명)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김동현(가명)입니다. 책상이랑 옷장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깨끗해졌어요. 돼지 저금통 열심히 모아서 꼭 집 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KBS라디오 희망충전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손쉬운 나눔 문화를 이끌고자 2013년부터 KBS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53명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총 3억 6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원이(가명) 보호자

"추운 겨울, 그렇게 유행하던 롱패딩 하나 입히지 못하고 학교에 보냈는데, 후원자님 덕분에 주원이(가명)와 그 어느 때보다 따듯하고 행복이 넘치는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마음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이의 행복과 웃음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방송 캠페인

- **SBS 희망TV** SBS와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국내 환아지원,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등 다양한 사업으로 즐거운 기부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 **JTBC 나눔에세이** 2019년 강원산불피해가정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국내 아동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후원자와 함께 아이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국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아들을 위해 지난 29년간 이어온 대국민 모금 캠페인으로 2019년에도 국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MBC 나누면 행복** 의료, 주거, 생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 **KBS 바다 건너 사랑**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계 최빈국 국가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후원자와 함께 만드는 초록우산

함께하는 후원자님이 있기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존재합니다.



나눔 인생 40년을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재단과 함께 따듯한 나눔을
이어오신 많은 후원자님이 있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저 역시 후원자 중 한 명으로서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나눔보다 위대한 명예는 없다
전국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는 국내 최대의 후원자 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후원자들이 모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재단의 아동복지사업 지원, 후원자 개발,
봉사 및 기부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전국 총 **51개 후원회** 운영 광역시도 후원회 **20개** 시군구 후원회 **31개**	전국 후원 회원 **1,452명** (2019.12.31. 기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
초록우산 MEMBERS

#아동옹호후원자가알린다! #후원추천 #초록우산서포터즈 #총968명 #2,914번공유활동 #WeAreMembers



행복한 집을 꿈꾸다
초록우산이 좋다, 패밀리가 함께 온다

#가족후원 #50가족220명 #나눔교육 #어린이날 #즐거운나눔경험



힘찬 노래로 나눔을 잇다
초록우산 후원자 합창단 **함께그린합창단**

#나눔공연5회 #제2회정기공연성공 #수익금은조손가정겨울나기지원 #71명의화음 #매주목요일연습



후원자와 함께하는 나눔TALK콘서트
초록우산 **소행성**

#나눔의소소한행복과성장 #나눔의기적 #3회183명 #어린이♥후원자와함께행복



초록우산 후원자 봉사활동
초능력 **빵빵한 나눔**

#초록우산후원자의능력 #보람 #뿌듯함 #맛있는빵배달 #대전지역후원자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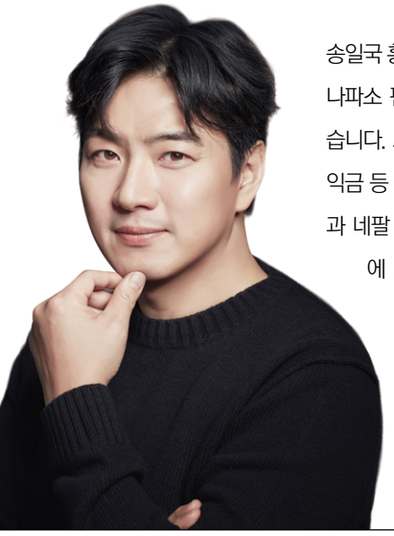
아이들을 위해 함께 걸어온 30년
장기후원자 209명 명예의 전당 헌액

#30년의동행고맙습니다 #1989년부터 #나눔고수 #초록우산명예의전당 #누적575명

2019 스타 서포터즈 활동

초록우산의 든든한 지원자인 스타 서포터즈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재단과 함께 갑니다.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NEW 홍보대사 **송일국**

송일국 홍보대사는 KBS 〈2012 희망로드 대장정〉 부르키나파소 편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삼둥이 이모티콘'과 '삼둥이 달력' 수익금 등 총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국내 소외계층 아동과 네팔 지진피해 아동들에게 기부하며 '그린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내레이션 재능기부, 초록우산 어린이체 시즌3 프로젝트, 제13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홍보산타 활동 등 재단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2019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나눔대사 **고두심**



37년간 어린이재단과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는 고두심 나눔대사는 2019년 TBN한국교통방송 라디오 〈함께 그린 세상〉, JTBC 〈나눔에세이 희망을 품다〉 등 아동 사례 지원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나눔음악회 〈당신이 희망입니다〉에서는 인재양성 아동의 이야기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의 내레이션으로 큰 감동을 전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이홍렬**



2005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홍렬의 락락페스티벌〉. 2019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15번째 락락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19년에는 3억여 원의 역대 최고 후원금이 모금되어 경기도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밖에 나눔강연 〈이홍렬의 Fun-Donation〉을 통해 각 지역의 후원사 임직원 1,100명에게 나눔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염정아 · 허일**



아이들에 대한 따듯한 마음을 담아 부부가 함께 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염정아 · 허일 부부는 2019년 대한민국 아동 · 청소년 인성 함양 캠페인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4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홍보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친선대사 **조수빈**

제4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 발대식 MC, 10월의 어느 멋진 만남 음악회 MC, 인천시 어린이 합창대회 MC 등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김경란**



남수단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며, 2019년에 직접 자선바자회를 열어 한사랑장애영아원 아동 돕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눔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친선대사 **박상영**

재단과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장학생으로 인연을 맺은 박상영 친선대사는 2019년 아이리더 발대식 초청 영상을 통해 후배들을 아낌없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김사랑**

해외 아동 지원에 대한 관심으로 2018년 재단과 인연을 맺은 김사랑 홍보대사. 2019년에는 〈SBS 희망TV〉 국내 아동 사례 내레이션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친선대사 **이예랑**



초록우산 아이리더 멘토로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꿈을 찾아가도록 함께 응원하는 이예랑 친선대사는 2019년, 대전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며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전광렬 가족**


#홍보대사 **이외수**


#홍보대사 **뽀롱뽀롱 뽀로로**


#홍보대사 **추신수**


#친선대사 **한다감**


#홍보대사 **타요**


#홍보대사 **김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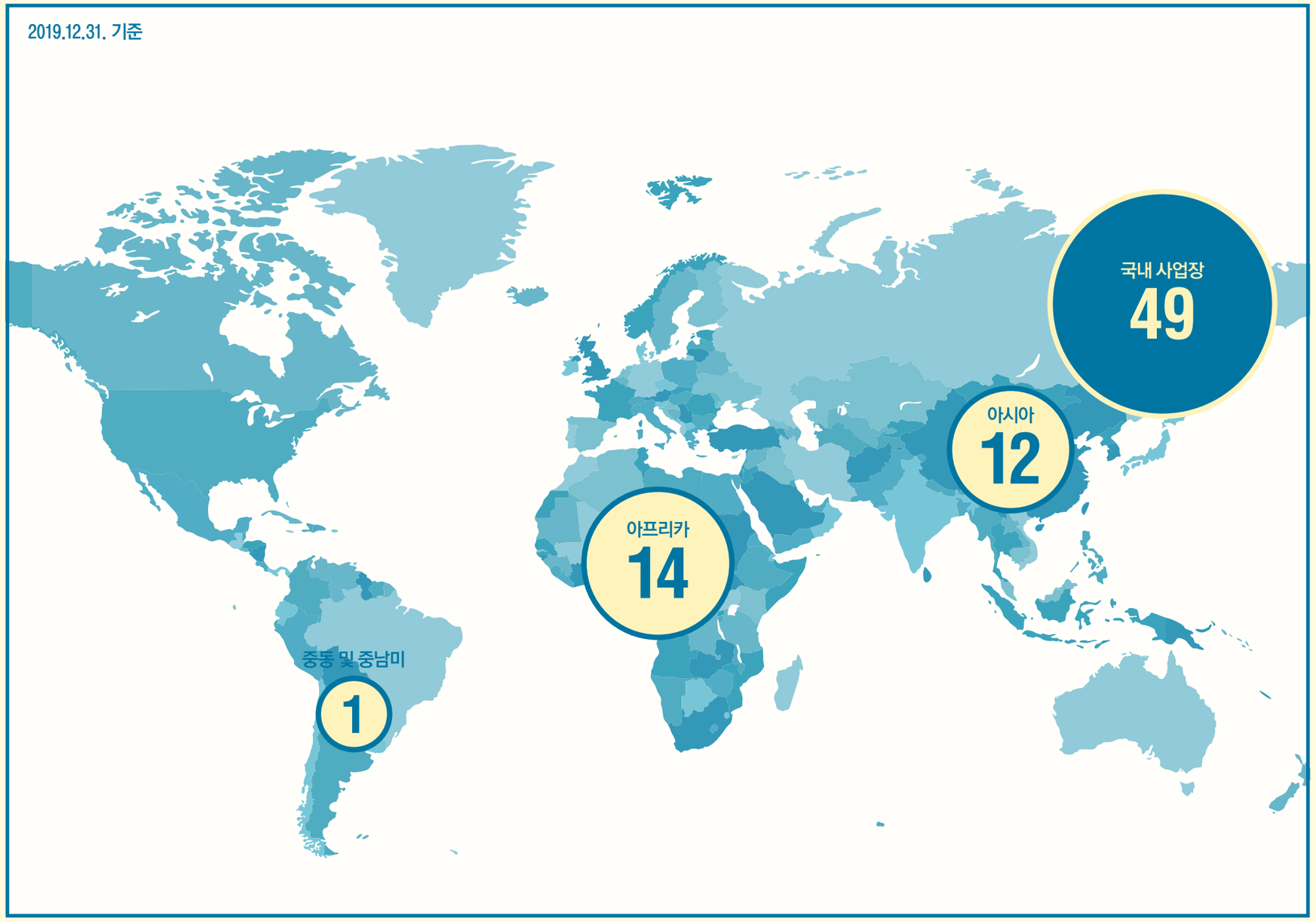

#홍보대사 **한고은**


#친선대사 **손은서**


#친선대사 **안신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 세계 어린이의 행복을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를 돕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국내 사업장 현황

지역본부 19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회복지관 7
아동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6
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6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발견·보호·치료 의뢰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구, 광주, 강원, 전남, 제주

아이존 1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

한사랑공동체 1
장애 아동이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한사랑마을, 한사랑학교, 한사랑장애영아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공간과 전문적인 치료 및 교육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

아동옹호센터 9
아동 친화적인 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 옹호활동과 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세종

해외 사업장 현황

아프리카 14
가나, 감비아, 남수단, 르완다, 말라위,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탄자니아

아시아 12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북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중동 및 중남미 1
볼리비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꿈을 키우며 올곧게 자라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개인적 · 즉각적 문제 해결을 넘어 근본적 · 구조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아동 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과 함께한 2019년,
초록우산이 있어 아이들이 더 행복합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2019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빈곤아동을 돕는 일부터 아이들이 원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진정한 의미의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탄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위상을 다지고, 여러 형태의 정부 정책 반영 등
'초록우산이 있어 아이들이 더 행복한 2019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재단을 믿고 늘 함께해주시는 50여 만의 후원자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해 아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거기본법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모사업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인재양성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총 489명의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꿈을 키워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 초저출생의 여파, 아동에게 와닿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권리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욱 필요합니다.

202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아이들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는 '미래에서 온 투표' 그리고 기후 및 환경 악화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 촉구 등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들께서 재단과 함께해주시는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저희들의 도전은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직원 모두가 재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또 후원자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이 가져오는 문제,
미세먼지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 등 이슈 제기와 아동권리환경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초록우산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2020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 제훈

초록우산이 있어 아이들이 더 행복합니다.
당신이 초록우산입니다.